

전북도, 설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11~14일까지 종합상황반 등 7개반 구성해 특별방역·안전사고예방·교통대책 등 주력

전북도는 설 연휴기간 도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종합상황실은 종합상황반 등 7개반 180명으로 구성해 11일부터 4일간 운영되며,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고향 방문 자제'와 '도민 안전을 전제로 특별방역, 안전사고예방, 교통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연휴 기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방역대책상황반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소 선별진료소(15개소)와 보건

환경연구원, 감염병 전담병원(5개소)을 정상 운영해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격리·입원치료를 실시한다.

도내 각 시·군에서는 24시간 역학조사반, 소독반, 검체 채취반 등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소독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코로나19 이외의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한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21개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도 비상진료(164개소)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는 119, 129(보건복지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도 및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연휴기간만 여는 의료기관, 약국 정보는 당일 제공)과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www.e-gen.or.kr)를 통해서도 당직의료기관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물가대책상황반을 통해 설 물가동향을 파악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24시간 재난재해대책반을 운영,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해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상황담당요원 1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즉각적으로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투입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CBS), 지역방송, SNS 문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재난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긴급재난문자(CBS)를 활용해 확진자

동선안내 및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긴급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시·군 재난상황실 또는 전북도 재난상황실(063-280-2995)로 신고를 하게 되면, 재난 유형별 주민 대피 요령과 재난발생 초기 상황 등의 대처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교통대책 추진을 위해 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설 연휴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장은 "이번 설 명절 연휴는 가족들과 함께 차분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하는 등 상황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쌀' 전국 명품쌀 인정

정부양곡 공매 최고가 낙찰·농산시책 최우수기관 선정

쌀 품질 향상 지원사업들이 결실을 맺으며 '전북쌀'이 고품질 쌀로서 인정받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정부양곡 공매 결과 '전북쌀'이 전국 최고가로 낙찰돼 대외적으로 '전북쌀'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고, 행정당국 또한 농식품부의 농산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05년부터 쌀 경쟁력 제고하자 벼 생산 농가와 단체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지원해 온 다양한 정책들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그간 도는 공동영농 확대를 위한

중점사업(공동육묘·방제)과 현장에 맞는 시·군 자율사업을 구분해 사업 효율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민·관 협치 삼락농정 위원회와 농가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정책적 진화를 거듭해왔다.

올해는 육묘장 시설개보수, 방제드론 기종 확대, 우수브랜드쌀 홍보 지원 등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세부사업에 1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거점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가공·건조·저장 시설 지원도 꾸준히 추진한다.

/유호상 기자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관리정책 총력

도,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저감대책 추진

전북도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와 이동 측정차량 단속 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도는 지난 2019년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 2016년 대비 2024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35% 이상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수송과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 30개 사업에 1조3,173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5,553대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경유차 2만9,599대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민간 감시원 50명을 채용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업체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도내 산업단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는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군과 함께 지난해 12월 비디오 카메라, 매연 측정기 등을 활용, 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 9,508대의 배출가스를 점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20대에 대해 개선토록 하는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 1월에는 병커C유를 사용하는 핵심관리사업장 87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현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이동량이 많은 31개 도로 130km를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하고 1일 2회 이상 살수, 분진 흡입 청소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전북지방환경청, 시군과 협력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송진희 도지사는 "전북도는 그동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과감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면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계란 가격동향 점검 하는 홍남기 부총리 (www.e-gen.or.kr)를 통해서도 당직의료기관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도, 설 명절 온라인 성묘서비스 이용 당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이번 설 명절에는 기급적 성묘를 자제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9일 전북도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복지부 운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

go.kr)을 통해 ▲유가족이 직접 음식메시지 및 동영상 등록 ▲온라인 추모관 꾸미기(차례상, 분향, 헌화, 사진첩) ▲지방입력 기능(고인과 이름과 직위, 제주간의 관계 입력) ▲가족·친지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유가 가능하다.

한편, 연휴 기간 중 실내 성묘를 위한 방문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을 도입한다.

/유호상 기자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 개최

도정 운영 방향·주요 시책 추진상황 등 공유

전북도가 도정 현안과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함께 상생발전 협업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도내 14개 시·군 기획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시·군과 공유하고, 시·군의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군 건의 사항을 도 소관 부서와 함께 검토해 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실장은 도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시군과 공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올해 전북도는 영정치원(寧靜致遠)의 자세로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각 분야의 체질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 실현에 더욱 매진, 전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와 환경에 맞춰 선정된 9대 역점 시책과 전북 대도약 11대 핵심프로젝트도 공유했다.

/유호상 기자

특히, 2021년 도정운영방향 공유·확산을 통한 내실있는 추진으로 정책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당면한 주요현안을 협력 추진하기 위해 먼저, 도와 시군은 국가예산사업 추가 발굴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정 핵심과제 및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발굴된 신규사업은 도, 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부처 설명 등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2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을 독려해 정부 재정사업이 민간의 소비·투자 증대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 집행률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북형 뉴딜' 추진을 위해 시·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도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국가예산사업 추가 발굴, 재정 신속집행, '전북형 뉴딜' 등 각종 중점적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원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도서관 편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대학교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사
-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0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새롭고 멋진 스피치 노하우' 중

학교명	주요과제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원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동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